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0호> 2019년 9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럭비 월드컵 2019 오이타 개최 직전 이벤트 개최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24일 토요일, 오이타역 앞 광장에서 오이타 개최 직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거대 오브제의 제막식 및 전 일본 대표 선수와 인기 모델의 토크쇼, 뉴질랜드 대 오스트레일리아 경기의 퍼블릭 뷰잉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퍼블릭 뷰잉 전 다케타시 럭비 스쿨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양국의 국가를 제창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를 달구며 럭비 대회 개막에 앞서 시내에는 활기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우사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키츠키시에 이어 이번 호는 우사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사시의 국제 관계 사업 소개’

인바운드용 매뉴얼, 팸플릿 제작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인바운드 정보를 담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매뉴얼 ~welcome to Usa City~’와 관광 홍보를 위한 팸플릿(영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을 제작했습니다.



다언어 표기 관광 안내 간판 설치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해 토리이 모양의 다언어 표기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우사시, 분고타카다시를 소개하는 광역 관광 안내 간판에도 영어 표기를 추가했습니다.

온천현 오이타 Wi-Fi 설치

‘온천현 오이타 Wi-Fi’는 외국인 여행객 편리성 향상 및 관광 교통 정보 발신력 강화 등을 주목적으로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 무선 랜 서비스입니다. 현내에서도 많은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사시내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 경주시 우호친선도시 교류사업

한국 경주시와는 1992년에 우호 친선 도시를 체결하여 지역 문화 부흥 및 국제 사회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지무 페어 와인 마츠리’에 경주시를 초청하여 떡볶이와 부침개 등을 판매하고 관광 PR을 실시했으며, 경주시에서 실시된 ‘신라문화제’에 참가하여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올해는 ‘경주 벚꽃 마라톤’에 참가하여 스포츠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우사시 관광 마을만들기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0호> 2019년 9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 트리니타 축구 시합 관전



오이타 트리니타는 오이타현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 축구팀으로 트리니타란 영어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트리니티(Trinity)’와 ‘오이타’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1994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으며, 2019년 J2 리그에서 J1 리그로 승격되어 현재도 10위권 안을 유지하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리니타에는 과거 황보관 등 한국인이 감독을 맡은 적도 있으며 한국국가대표였던 김보경 선수 등이 뛰기도 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도 1명의 한국인 선수가 트리니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쇼와덴코돔 오이타에서 오이타 트리니타와 가시마 앤틀러스의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오이타 트리니타의 창단 25주년을 맞이하여 선착순 2만 5천명에게 오이타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키타무라 나오토’ 화가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무료로 배부하고 배우를 초청한 토크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덕분에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올해 최대 관중 수인 약 2만 8천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고 전광판으로 출전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되자 아직 경기 시작 전임에도 왓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고 한편으론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를 훨씬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서포터즈의 응원에도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창단 25주년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와 한시도 쉬지않고 노래를 부르고 이름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에 경기장 열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선수들 플레이에 여기저기서 탄성과 환호성이 들려오고 후반부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0:1 가시마 앤틀러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상대편이 워낙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싸워준 트리니타 선수들에게도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직접 관전해보니 TV 중계로는 알 수 없는 스포츠의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생생한 현장감과 뜨거운 응원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티켓은 인터넷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매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경기장인 쇼와덴코 돔 오이타로 오시는 길은 오이타역에서 셔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셔틀버스는 오이타역과 가까운 카나메마치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5~10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경기장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가격은 노선 버스와 동일한 어른 360엔, 어린이 180엔입니다.

▶ 티켓&오시는 길